

중국어 부사 ‘就是’의 화용 기능과 운용 실현의 상관관계 고찰*

이 미 경**

<目次>

I. 서론	III. 분석 및 논의
II. 선행 연구	1. ‘就是’의 화용 의미
III. 연구 방법	2. ‘就是’의 운용 특징
	IV. 결론

I. 서론

중국어 부사 ‘就是’ jiùshì¹⁾는 현대 중국어 구어 담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어²⁾ 중 하나이다. 《现代汉语常用词表(草案)》(2008:3)에 따르면, ‘就是’는 사용 빈도 133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음질 부사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이것은 ‘就是’가 일상 담화 전반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화자의 의도와 담화 구조를 조절하는 주요 표지임을 보여준다. ‘就是’는 문장 내 위치와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강조, 확인, 설명, 결론 제시 등 다양한 화용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다기능성은 단순한 의미 차

*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 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5802).

** 대구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국제학부 부교수

1) 《现代汉语常词典》은 就是을 jiùshì로 표기하고 있다.

2) 부사가 기능어인지에 관한 학자 간의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운율적 실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就是’는 화자의 태도, 의도, 정보 초점을 운율적으로 부각하여 담화의 해석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한다. 그러한 운율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의미적 분류나 문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에 머물러, 실제 발화에서 운율이 화용 기능을 어떻게 실현하고 제약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성조나 억양이나 기본 주파수(F0) 등의 음향적 특성을 언급한 음성 관련 연구에서도 화용 기능과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就是’의 화용 기능과 운율적 실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운율이 화용에 영향을 주고, 화용이 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就是’의 화용 기능과 운율적 실현 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就是’의 주요 화용 기능을 강조형(F1), 확인형(F2), 설명형(F3), 결론형(F4)의 네 범주로 설정하였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발화를 실제 구어 담화 자료에서 추출하고, 그것의 운율적 특징을 음높이(F0), 음길이(duration), 기울기(slope) 세 가지 음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장르별 발화 문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 정치 담화인 시진핑 연설문(《习近平讲话》), (2) 강연 담화인 《一刻Talks》³⁾ 자료, (3) 학습 담화인 중국어 교재 《成功之路》⁴⁾ 자료, (4) 생활 담화인 드라마 《家有儿女》⁵⁾ 대본

3) 《一刻talks》는 베이징장위후둥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掌娱互动文化传播有限公司)에서 출시한 지식인 신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TED, 세바시 등과 유사한 중국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스탠딩 강연과 온라인 영상 형식을 통해 지능, 유전자, 비즈니스, 금융, 교육, 예술의 6가지 혁신 분야의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4) 《成功之路》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을 위해 쓰인 중국어 교재 시리즈로, 총 22권으로 이루어졌고 베이징어언대학출판사에서 제작하였다.

5) 《家有儿女》는 중국 린충(林丛) 감독이 제작한 아동을 소재로 한 시트콤으로, 이혼한 두 가정이 결합한 후 부모와 세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다. 이 드라마는 2005년 처음 방영하였고, 1부, 2부, 3부는 각각 100회이며, 4부는 총 67회, 총 367회로 이루어졌다. 각회는 약 20~25

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각 담화에서 ‘就是’가 포함된 문장 중 일부 선택하여 녹음한 후 就와 是의 발화 구간을 음성분석 도구인 프라트(Praat)로 계량 분석하였으며, 화용 기능별 운율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기능 유형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就是’의 화용 기능이 운율 구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또한 운율이 화용 의미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의미나 문법 중심 연구를 넘어, ‘就是’의 화용 기능을 운율 화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둘째, 화용 기능별 운율 패턴을 음향 지표로 계량화함으로써 운율-화용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담화 장르의 자료를 비교하여 운율 차이가 화용 기능뿐 아니라 담화 유형의 제약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 중국어 운율 문법 연구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중국어 부사 ‘就是’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에서도 의미적 다의성과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화용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자들은 ‘就是’가 문장 내에서 단순한 부사 기능을 넘어 담화 층위에서 화자의 의도, 태도, 논리 전개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먼저 강조 기능에 대해서는 史金生·胡晓萍(2013), 姚双云·姚小鹏(2012), 张惟(2012) 등이 일관되게 지적하였다. 史金生·胡晓萍(2013)은 ‘就是’가 발화에서 명시(明示), 머뭇거림(迟疑), 자기 수정(自我修正), 화제 설정(话题确立) 등의 담화 기능을 가지며, 그중 화제 설정은

본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104회를 활용하였으므로 이는 2,080~2,600분(약 35~45시간)에 해당한다.

청자의 주의를 특정 정보에 집중시키는 화용적 강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张惟(2012)와 姚双云·姚小鹏(2012) 역시 자연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就是’가 발화자의 태도 강화와 정보 초점 돌출을 실현하는 강조 표지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확인(동의) 기능은 상호작용 언어학(Interactional Linguistics)의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欧芝同·谭方方(2024)는 Couper & Selting(2001)과 方梅·李先银·谢心阳(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就是’가 응답 위치에 따라 화자의 인식적 일치(epistemic alignment)와 태도적 수용(attitudinal acceptance)을 나타내는 확인(동의) 표지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就是, 就是, 我也觉得这个方法很好.’에서 ‘就是’는 상대 발화에 대한 동의와 인식적 일치를 표현한다. 또한 그들은 대화 맥락에서 ‘就是’의 확인 기능을 ‘행위-동의’, ‘진술-동의’, ‘심문-동의’, ‘평가-동의’, ‘건의-동의’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설명 기능은 邓彦·胡姝昀(2022)과 李馨悦·谭方方(2024)에서 확인된다. 邓彦·胡姝昀(2022)은 법정 담화에서 ‘就是’가 앞 문장의 의미를 환언하거나 인과 관계를 명시화하는 설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李馨悦·谭方方(2024)는 의료 담화에서 ‘就是’가 화자의 발화를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하는 설명적 담화 표지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결론 제시 기능은 张惟(2012)와 史金生·胡晓萍(2013)의 연구에서 언급된다. 张惟(2012)는 ‘就是’가 담화의 종결 부분에서 앞선 논의를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 표지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고, 史金生·胡晓萍(2013)은 ‘就是’가 담화 경계를 명시하며 발화의 종결 리듬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就是’의 화용 기능을 대체로 강조, 확인, 설명, 결론 제시의 네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의미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화용 기능이 실제 발화에서 어떠한 운율적 실현 양상(prosodic realization)으로 구체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실제로 ‘就是’의 운율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담화 표지 일반에 관한 연구에서 운율의 역할을 언급하였으나(冯胜利:1997), ‘就是’를 대상으

로 억양(intonation), 강세(stress), 발화 길이(duration), 혹은 경계 억양(boundary tone) 등을 계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운율 초점(prosodic focus)이나 운율 경계 억양(intonational contour)이 화용 기능 실현에 어떤 제약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논의한 사례도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네 가지 화용 의미 기능 유형을 바탕으로, 정치 담화, 강연, 교수 매체, 생활 회화 등 다양한 담화 장르에서 추출한 실제 발화 자료를 활용하여 ‘就是’의 화용 의미별 운율 실현 양상을 음높이(F0), 음길이(duration), 기울기(slope) 등의 음향 지표로 계량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就是’의 운율적 실현이 화용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중국어 부사의 운율-화용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베이징대학교 코퍼스, 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코퍼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한 코퍼스를 기초로 진행하였다. 시진핑 연설문 10편, 《成功之路》 22권 본문, 《一刻Talks》 10회 자료, 《家有儿女》 104집 분량의 대본에서 ‘就是’를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하여 ‘就是’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또 그중 일부 문장만을 선정하여 운율적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就是’가 포함된 문장 중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화용 기능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유형별 F1(강조형), F2(확인형), F3(설명형), F4(결론형)로 선정하였다. 운율 분석 과정에서 문장 길이와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고, 분절하기 비교적 쉽고, ‘就是’ 앞뒤의 운율 단위가 비교적 명료한 문장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가능한 정치 담화, 강연 담화, 교수 매체 속 담화, 생활 담화를

대표하는 문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화용 기능별로 두 문장, 총 22개의 문장 속 ‘就是’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운율 분석은 대표성을 갖는 소규모 집합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2. 녹음 방법 및 분석 도구

본 연구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문장을 중국인 피실험자가 통제된 조건에서 녹음하였으며 그 녹음한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피실험자는 북방 방언 지역 출신의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성인 여성 화자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미리 녹음 자료를 제공하여 문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녹음 자료를 D대학교의 스마트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녹음을 통제하였다. 또한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녹음실에서 진행되는 녹음이기는 하지만 장르별 문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어주기를 요청하였고, 피실험자가 녹음하는 중간에 혹시 틀렸다고 생각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실험자는 ‘就是’가 포함된 22개 문장을 각각 다섯 번씩 읽었고(2인*22문장*5회=220문장), 실험자는 그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녹음을 제외한 총 132개 문장의 ‘就是’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피실험자의 소리는 Adobe Audition 2022로 녹음하여 wav 파일로 만들었으며, 이것을 Praat version 6.4.06으로 TextGrid, PitchTier를 만들고 음높이, 음길이, 기울기를 분석하였다.

〈표 1〉 피실험자 및 녹음 방법

항목	내용
화자	여성 2인
화용 의미 유형	F1(강조형), F2(확인형), F3(설명형), F4(결론형)
녹음 횟수	5회(6)
목표 단어	就是

통계 분석은 Python 3.11 기반의 SciPy 패키지(scipy.stats)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수행하였으며, 화용 유형별, 단어별 평균값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길이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운율 분석은 시간적,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자연 발화 코퍼스 전체가 아니라 선정된 소수 문장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성격의 분석이다. 또한 분석 대상이 낭독 발화라는 점에서 자연 발화의 운율 양상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용 기능이 다른 ‘就是’가 포함된 문장에 대해 기능별 운율 패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성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분석 및 논의

1. ‘就是’의 화용 의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네 개의 담화 유형에 해당하는 코퍼스에서 ‘就是’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하였다. ‘就是’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네 개의 화용 의미 기능에 따라 강조형, 확인형, 설명형, 결론형으로 나누었고, ‘就是’가 포함된 모든 문장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 <표 2>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习近平讲话》는 JH로, 《一刻Talks》는 TK로, 《成功之路》는 CG로, 《家有儿女》는 EN으로 표기하였다.

6) 녹음은 5회 하였지만 실제 사용한 자료는 첫 번째 녹음분과 다섯 번째 녹음분을 제외한 3회분에 해당한다.

〈표 2〉 ‘就是’의 화용 기능 분포 및 담화 유형별 비율

	习近平讲话 (JH)	一刻talks (TK)	成功之路 (CG)	家有儿女 (EN)	합
F1	6 16.7%	11 8.1%	35 9.9%	264 25.0%	316 20.0%
F2	0 0.0%	0 0.0%	0 0.0%	98 9.3%	98 6.2%
F3	27 75.0%	93 68.4%	294 83.1%	616 58.3%	1,030 65.1%
F4	3 8.3%	32 23.5%	24 6.8%	79 7.5%	138 8.7%
합	36	136	354	1,057	1,583

〈표 2〉는 담화 유형별로 ‘就是’의 화용 의미 기능 분포를 보여준다. ‘就是’의 화용 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설명형(F3)이 6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就是’는 발화 내에서 정의, 환언, 설명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习近平演讲》, 《一刻talks》, 《成功之路》와 같은 담화적 장르에서 논리적 연결과 정보 구조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부사 ‘就’가 ‘就是’로 확장되고, ‘(也)就是说’로 확장되어 가는 것의 핵심 의미도 주로 정의, 환언, 설명이다. 강조형(F1)은 20.5%로, 주로 화자의 태도, 정서적 강조를 실현하고, 확인형(F2)은 생활 구어 중심인 《家有儿女》에서만 나타나서(9.3%), 구어체 대화에서 상호작용적 동의 기능으로 쓰임이 사용 비율을 볼 때 비교적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결론형(F4)은 8.7%로, 연결체나 담화의 귀결 혹은 요약 기능을 담당한다. 이상의 ‘就是’의 분포 양상으로 볼 때, ‘就是’의 핵심 기능은 설명형 중심의 화용적 연결 표지로 볼 수 있다.

‘就是’는 화용 기능에 따라 통사적 실현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F1(강조형)은 문두나 문중에 위치하여 명사, 형용, 동사구를 수식하며, 특정 정보 단위를 부각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때 ‘就是’는 술어 앞의

부사로 실현되어 화자의 단정적 태도나 확신을 나타내며, ‘简直’, ‘真的’, ‘完全’ 등과 같은 다른 정도 부사와 결합해 강조적 단언 구조를 형성한다. 이 유형은 단문이나 병렬문에서 빈번히 출현하며, 발화의 초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1) 我就是喜欢这样的人。
- 2) 他简直就是不可能不知道这件事。

F2(확인형)는 상호작용적 담화 상황에서 상대의 발화나 의견에 대한 동의나 수용을 나타낸다. 주로 문두에 단독으로 쓰이거나 감탄사 및 반복 구조로 실현되어 화자의 인식적 일치나 태도적 공감을 드러낸다. 또한 ‘可能就是…’, ‘也许就是…’과 같은 추측 부사 결합형에서는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완화하는 완곡한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용법은 문법적으로는 부사형이지만, 담화적으로는 화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대한 응답 표지로 기능하며 상호 화행의 연결을 담당한다.

- 3) 就是, 就是, 我也觉得不错。
- 4) 他可能就是忘了。

F3(설명형)은 담화 내 인과 관계를 명시하거나 전후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原因就是…’, ‘问题就是…’와 같은 구문에서처럼 명사구와 결합하여 원인, 상황, 논점을 설명하며, ‘其实就是…’, ‘原来就是…’ 등의 부사 결합형으로도 자주 실현된다. 이때 ‘就是’는 문두나 주어 뒤에서 접속 부사의 역할을 하며, 앞 문장의 의미를 해명하거나 재구성하는 담화 전환 표지로 작용한다. 즉, F3 유형은 문법적으로 복문 구조에서 인과 관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을 해명하는 절을 연결하고, 의미적으로는 설명적 초점을 부여한다.

- 5) 原因就是天气不好。
- 6) 其实就是一种误会。

F4(결론형)는 담화의 종결 부분이나 요약 부분에 위치하여 앞선 발화를 귀결하거나 중심 논지를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所以就是...’, ‘因此就是...’ 등 결론을 끌어내는 접속사 결합형이나 ‘这’나 ‘那’ 등의 지시사 결합형 구문에서 자주 나타난다.⁷⁾ 이때 ‘就是’는 문두나 복문 후행절에서 문장을 주요 의미를 이끌거나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계사(系词)적 기능을 가지며, 담화 전체의 요약이나 결론을 명시한다. 결론형 ‘就是’는 발화의 인과적 흐름을 마무리하고,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 7) 这就是我们的目标。
- 8) 所以就是要努力学习。

이상을 종합하면, ‘就是’는 화용 기능에 따라 문법적 요소인 부사, 접속사, 계사적 요소 등 교차적으로 실현되며, 통사적 위치와 결합 형태에 따라 의미 초점과 정보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담화 표지로 작용한다.

2. ‘就是’의 운율 특징

본 절에서는 음길이, 음높이, 기울기의 운율적 요소로 인한 화용 의미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 3>은 코퍼스에서 추출한 ‘就是’를 포함한 문장을 화용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중 코퍼스에서 추출하여 녹음에 사용한 문장이다.

7) 이때는 주로 ‘这就是...’이나 ‘那就是...’의 패턴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是는 통사적으로 동사이지만 넓은 의미로 결론형에 포함하였다.

〈표 3〉 ‘就是’의 화용 기능에 따른 예시

자료	화용 유형	예시
JH	F1	马克思主义博大精深, 归根到底 就是 一句话, 为人类求解放。 中国共产党之所以叫共产党, 就是因为 从成立之日起我们党就把共产主义确立为远大理想。
	F2	
	F3	马克思给我们留下的最有价值的精神财富, 就是 以他名字命名的科学理论——马克思主义。 纯洁性、先进性是马克思主义政党的本质属性, 我们加强党的建设, 就是要 同一切弱化先进性、损害纯洁性的问题作斗争。
	F4	江山 就是 人民, 人民 就是 江山。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 就是 我们的奋斗目标。
TK	F1	核心其实 就是 一件事, 幸福。 真正让我们幸福的只有一件事, 就是 改变你的认知水平。
	F2	
	F3	城市更新 就是 人的改变。 这个办法 就是 , 他找了好多人, 然后给他们每一个人配一传呼机。
	F4	这就是 艺术的力量。 所以, 我们得每天去关照自己的内心, 去感受自己是不是在一天一天变得更好, 这就是 读书带给我们的体会。
CG	F1	我 就是 要去。 我 就是 觉得只有坚持不懈, 才能真正成功。
	F2	
	F3	原因 就是 他没来。 这只是原因之一, 还有一个更重要的原因, 就是 胡同一年比一年少了。
	F4	这就是 问题所在。 丈夫和妻子的关系就好像左手和右手的关系, 如果丈夫是左手, 妻子 就是 右手。

자료	화용 유형	예시
EN	F1	我 就是 不想去上学。 我早就告诉你了, 这次我 就是 要靠自己的努力。
	F2	对, 就是 。 嗯, 我明白了, 你说的 就是 那个意思, 对吧?
	F3	妈妈说, 学习好 就是 为了有个好未来。 他每天都复习到深夜, 就是 想考上好大学。
	F4	这 就是 生活。 我们吵了半天, 其实这 就是 一家人最真实的样子。

〈표 3〉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자료에서 그 화용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장르별 문체에 따른 결과로 《习近平演讲》, 《一刻talks》, 《成功之路》와 같은 담화적 장르에서는 화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관한 확인이나 동의의 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1) 음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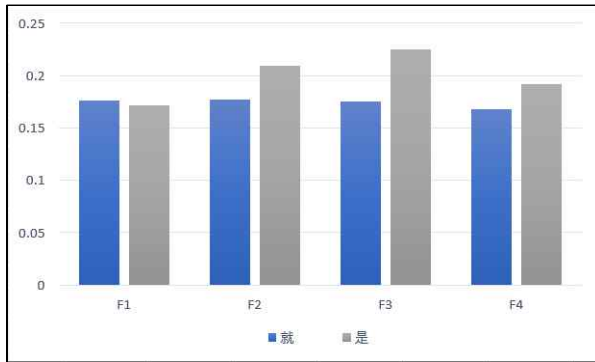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운율 요소 중 하나인 음길이(duration)에 따른 화용 의미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 4〉는 ‘就是’를 화용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한 통계 결과로 녹음 문장 속의 ‘就是’에 대한 음길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就’와 ‘是’의 각각의 화용 의미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화용 의미 유형에 따라 두 음절 ‘就’와 ‘是’의 각각의 음길이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화자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산출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F1(강조형)과 F2(확인형)에서는 두 음절의 음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강조형과 확인형 담화에서 ‘就’와 ‘是’의 운율적인 차이는 음길이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음절 길이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중 강조형은 ‘就’와 ‘是’의 음길이가 거의 1로 나타나 《现代汉语常词典》에 각 4성으로 표기된 jiùshì에 가까운데 이는 자연 발화에서 ‘是’의 음높이가 약화하여 음길이가 짧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특정한 발화 현상이고 특정한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화용 의미 유형별 就와 是의 음길이 통계⁸⁾

화용 유형	就 (mean±std)	是 (mean±std)	就 vs. 是	t값	p값
F1	0.176 ±0.033	0.172 ±0.067	1.02	0.32	0.747
F2	0.177 ±0.045	0.209 ±0.085	0.85	-1.13	0.274
F3	0.175 ±0.026	0.225 ±0.083	0.71	-2.88	*0.0057
F4	0.168 ±0.031	0.192 ±0.092	0.86	-2.80	*0.0064



〈그림 1〉 화용 의미 유형별 ‘就’와 ‘是’의 음길이 비교

8) 음길이 비교는 Python 3.11 환경에서 SciPy (v1.11)의 독립표본 t-검정(ttest_ind)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은 초 단위(Second)로 표시되었으며, ±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의미하고, p < 0.05인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F3(설명형)과 F4(결론형)에서는 두 음절 간 발화 길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특히 두 유형 ‘就’와 ‘是’의 비율은 각각 0.71과 0.86으로, 모두 ‘是’의 평균 발화 길이가 ‘就’보다 길다. 이러한 ‘是’의 장음화 현상은 설명형 담화(F3)와 결론형 담화(F4)에서 ‘是’가 문장 경계의 운율적 단서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담화 초점의 핵심 성분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就’는 담화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비강조적 전위 요소로, 또 ‘是’는 화행 의미를 종결하거나 담화 내용을 귀결짓는 운율적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즉, <표 4>와 <그림 1>의 결과에서 ‘就是’는 화용 의미 차이에 따라 음길이의 조정이 나타나며, 그 음길이 차이가 담화 기능의 차별적 실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F3과 F4 유형에서 나타난 ‘是’의 장음화는 설명과 결론이라는 담화 기능이 문장 경계에서 운율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어 운율 화용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음길이의 측면에서 볼 때, ‘就’은 운율적으로 안정적이고, ‘是’는 화용적으로 가변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두 화자의 개별적인 발화 길이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화자 간 길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이는 ‘就是’의 음절 길이 조절이 개별 화자의 발화 습관보다는 화용적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F4(결론형)의 ‘就’와 F1(강조형) ‘是’의 경우에만 화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 < 0.05$), 이는 개별 화자가 문장 종결 부분이나 강조 환경에서 운율적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제한적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두 화자는 동일한 운율 패턴, 즉 설명형과 결론형에서 ‘是’의 장음화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길이의 측면에서 문체 간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就’는 어떤 문체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是’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표 5〉 장르별 ‘是’의 음길이 비교

구분	문체 유형	평균(sec)	표준편차	유의 여부 ($p < .05$)
짧은 그룹	JH	0.154	0.027	-
	EN	0.163	0.054	-
긴 그룹	CG	0.216	0.085	>JH, EN
	TK	0.248	0.076	>JH, EN

분산분석 결과: $F(3,176) = 22.93, p < .001$

사후검정(Tukey HSD): TK, CG > JH, EN (모두 $p < .001$),

JH-EN 간 차이는 없음 ($p =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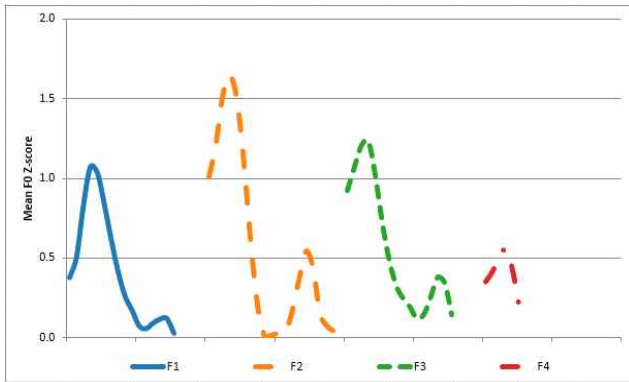
‘是’의 음길이는 장르별 문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176) = 22.93, p < .001$). 특히 강연(TK)와 교재(CG)에서의 ‘是’는 정치 담화(JH)와 시트콤 대사(EN)에 비해 유의하게 길게 실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이고 설명적인 담화일수록 발화자가 명제의 핵심을 명확히 나타내고 논리적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강연이나 교육활동에서의 ‘是’는 단순한 존재 확인이나 동사적 서술이 아니라, 담화 내에서 명제 초점과 논리 강조를 운율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면 정치 연설이나 시트콤 대사체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성과 리듬적 속도감이 중시되어, ‘是’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변이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是’의 길이 차이는 단순한 음운적 현상이라기보다, 담화 유형별 운율 전략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문장 길이에 따른 ‘就’와 ‘是’의 음길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문장 길이가 짧은 집단과 긴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就’가 담화의 길이나 문장 구조와 무관하게 일정한 리듬 단위를 유지하는 운율적 연결사로 기능하면서 발화 길이에 따라 조절되지 않으며, 담화 전환의 시점 표시로서 고정된 시간적 패턴을 나타낸다. 또 문장의 길이가 ‘是’의 시간적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며, 발화의 문체적 특성이나 화용 기능에 따라 운율적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음높이

〈표 3〉의 예시에서 제시한 문장 속 ‘就是’에 대한 음높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就是’의 네 가지 화용 의미 유형에 따라 두 음절 ‘就’와 ‘是’의 음높이(f_0) 비교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화용 의미에 따른 ‘就是’의 음높이 곡선 양상⁹⁾

‘就是’의 음높이 곡선 패턴 차이는 화용 기능에 따라 그 의미를 운율적으로 다르게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조형(F1)은 ‘就’의 음높이가 ‘是’보다 현저히 높게 시작하는 높내림조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화자의 태도적 강조와 정보 초점을 운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확인형(F2)은 네 유

9) 본 연구에서는 화자 간 음높이 범위 차이를 통제하고, 개별 발화의 상대적 억양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본 주파수(F_0) 값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화자의 발화 단위별 최대·최소 F_0 값을 기준으로 0-10구간으로 선형 변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 간 성별이나 음역 등의 차이에 따른 절대 음높이 편차를 제거하고, 운율적 윤곽의 상대적 변동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단어 및 구 단위의 피치 곡선 비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 절차(Xu:1999, Chen:2011, 이미경:2008, 2013 등)를 따른 것이다.

형 중 ‘就’의 음높이 시작점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른 급박한 높내림조를 보이며 ‘是’도 상대적으로 음높이가 높은 패턴을 나타내는 데 이로써 청자의 동의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호작용적 기능을 실현한다. 설명형(F3)은 전체적으로 ‘就’가 높내림조를 유지하는데 이는 화자의 담화 주도성과 정보 제공적 기능을 나타낸다. 결론형(F4)은 ‘就’의 시작점이 매우 낮고, ‘是’는 무성 마찰음 구간만 나타나 성대 진동으로 인한 음높이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 음절 모두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담화 단락의 종결 및 단언을 운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화용 의미 유형에 따른 ‘就是’의 음높이 값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동 원인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p
집단 간	5.05	3	1.68	7.75	*0.00
집단 내	16.51	76	0.22	-	-
합	21.56	79	-	-	-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에서 $F(3, 76)=7.75, p < .001$ 로 나타나서 네 화용 기능의 평균 음높이 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就是’의 음높이 곡선이 단순한 음높이 변화가 아니라 화행의 종류 및 담화 기능에 대응하는 운율적 실현임을 시사한다. 즉, 발화의 의도적 초점, 청자 지향성, 담화적 역할 등 화용적 요인이 음높이 곡선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부사 ‘就是’의 음높이 곡선의 패턴이 화용론적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3) 기울기

성조나 억양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음향적 신호는 기본 주파수(F0)로 알려져 있다. F0는 성대의 주기적 진동 빈도에 해당하며, 청자는

이를 음높이(pitch)로 지각한다. 다시 말해, F0는 물리적 수준에서의 진동 수이고, 음높이(pitch)는 그에 대응하는 청각적 속성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 때문에 F0는 성조의 높이나 억양의 오르내림 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음향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또한 일부 학자의 경우 기울기(slope)가 강세, 억양 패턴 등을 연구하는 데 주요 지표임을 주장한다. Hirschberg(2002)는 기울기를 포함한 음높이 변화가 화행 의미 해석에 관여한다는 운율과 화용의 상관성을 주장하였으며, Kim(2024)은 한국어 부정 대답문의 문장 유형에 따른 화행 기능을 기울기로 분석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미경·손남호(2010), O'Reilly(2015) 등 많은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울기를 운율의 한 요소로 살펴보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음높이의 높고 낮음으로는 화용 의미를 온전하게 나타내기 힘들 수도 있기도 하고 분석 요소가 다양해지면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text{기울기(Hz/s)} = \frac{\text{F0 end} - \text{F0 start}}{\text{t end} - \text{t start}}$$

F0 start : 구간 시작 지점의 음높이(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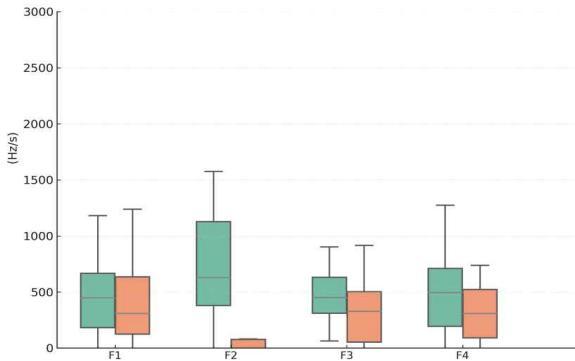
F0 end : 구간 종료 지점의 음높이(Hz)

t end - t start : 구간의 지속시간(sec)

기울기의 단위는 Hz/s이며, 기울기 값이 음수(-)일수록 해당 구간의 피치 하강이 가파름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상대 진동의 폭이 커서 청자에게 더 강하게 들리는 현상, 즉 운율적 강세로 인식이 되는 데(Xu & Sun:2002, Isaacs & Watson:2010, Niebuhr:2010, 오재혁:2014), 이러한 운율적 강세는 청자의 주의를 전환하거나 화자의 강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1은 ‘就’와 ‘是’의 기울기 차가 크지 않

아서 강세 분포가 균등하게 나타났고, F2는 ‘就’의 기울기가 가장 큰 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是’는 낮고 편차가 작다. 다시 말하면, F2의 ‘就’에 강세가 있고 청자가 화자의 주의나 확인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3는 ‘就’와 ‘是’ 기울기 폭이 좁고 완만하여 비감정적이고 중립적인 진술 억양으로 볼 수 있다. F4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내림조를 보이며 단언이나 결론의 담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화용 유형에 따른 ‘就’와 ‘是’의 기울기 박스플롯¹⁰⁾

〈그림 3〉의 박스플롯은 ‘就是’의 두 음절이 화용 의미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확인형인 F2에서 ‘就’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확신을 강조할 때 강세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즉, 기울기는 단순한 음높이의 경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으로 발화 의도의 세기와 상호작용적 태도를 나타내는 운율적 지표임을 알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음절별 기울기(slope, Hz/s)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Python 3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Seaborn과 Matplotlib을 활용하였다. 각 유형(F1~F4)에서 ‘就’와 ‘是’의 내부 피치 기울기(역방향 기준)를 박스플롯(boxplot)으로 나타내었으며, 세로축의 범위는 0~3000Hz/s로 제한하여 음높이 변화의 상대적 차이를 명확히 시각화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就是’의 화용 기능과 운율적 실현 양상 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就是’의 주요 화용 기능을 강조형(F1), 확인형(F2), 설명형(F3), 결론형(F4)의 네 범주로 설정하였고 ‘就’와 ‘是’에 대해 운율요소인 음높이, 음길이, 기울기로 분석하였다.

음길이 분석 결과에서 설명형과 결론형 유형에서 나타난 ‘是’의 장음화는 설명과 결론이라는 담화 기능이 문장 경계에서 운율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어 운율 화용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길이의 측면에서 볼 때, ‘就’는 운율적으로 안정적이고, ‘是’는 화용적으로 가변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음높이 분석 결과에서 ‘就是’의 음높이 곡선이 단순한 음높이 변화가 아니라 화행의 종류 및 담화 기능에 대응하는 운율적 실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발화의 의도적 초점, 청자 지향성, 담화적 역할 등 화용적 요인이 음높이 곡선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부사 ‘就是’의 음높이 곡선의 패턴이 화용론적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입증하였다.

기울기 분석 결과에서 기울기는 단순한 음높이의 경사가 아니라 화용적으로 발화 의도의 세기와 상호작용적 태도를 나타내는 운율적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 발화 코퍼스를 활용하거나 대규모 피실험자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 자료의 제약이 있는 파일럿 성격의 분석이라는 한계가 뚜렷함에도 화용 기능이 다른 ‘就是’의 운율 패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율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화자와 자연 발화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오재혁, 〈자유 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성에 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6(1), 2014.
-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의 음높이 변화〉, 《중국언어연구》 26권, 2008.
- 이미경, 〈중국어 음높이 변화의 형판 고찰〉, 《중국언어연구》 45권, 2013.
- 이미경·손남호, 〈중국어 자연 발화의 성조 음높이 변화〉, 《중국어문학》 55집, 2010.
- 现代汉语常用词表课题组, 《现代汉语常用词表(草案)》, 北京: 商务印书馆, 2008.
- 方梅·李先银·谢心阳, 〈互动语言学与互动视角的汉语研究〉, 北京: 《语言教学与研究》 第三集, 2018.
- 史金生·胡晓萍, 〈“就是”的话语标记功能及其语法化〉, 吉林: 《汉语学习》 第4期, 2013.
- 姚双云·姚小鹏, 〈自然口语中“就是”话语标记功能的浮现〉, 北京: 《世界汉语教学》 26(1), 2012.
- 张惟, 〈自然会话中“就是”的话语功能与语法化研究〉, 北京: 《语言教学与研究》 第1期, 2012.
- 欧芝同·谭方方, 〈互动视角下认同标记“就是”的功能考察〉, 上海: 《现代语言学》 12(6), 2024.
- 邓彦·胡姝昀, 〈法庭话语中“就是(说)”的语用功能研究〉, 青海: 《青海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44(2), 2022.
- 李馨悦·谭方方, 〈急诊科医患会话话语标记“就是(说)”的语用分析〉, 上海: 《现代语言学》 12(10), 2024.
- 冯胜利, 〈从语音看语法——汉语的韵律句法〉, 北京: 《中国语文》 第4期, 1997.
- Chen, Yiya, How does phonology guide phonetics in segment-F₀ interaction?

- Journal of Phonetics*, 39(4), 612–625, 2011.
- Couper-Kuhlen, E., & Selting, M. (Eds.), *Studies in interactional linguistics* (Vol. 10, Studies in Discourse and Gramma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1.
- Hirschberg, J., Pragmatics and prosody, *In Handbook of Pragmatics* 515–536, Amsterdam: John Benjamins, 2002.
- Isaacs, E. A., & Watson, D. G., Accent detection is a slippery slope: F0 slope as a cue to stress. *Journal of Phonetics* 38(3), 368–382, 2010.
- Kim, J., ToBI and beyond: Phonetic intonation of Seoul Korean ani, aniy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6(2), 39–52, 2024.
- Niebuhr, O., On the phonetics of intensifying emphasis in German. *Phonetica* 67(3), 174–198, 2010.
- O'Reilly, M., Declination, peak height and pitch level in declaratives and questions. *Proceedings of the 18th ICPhS* 1–5, 2015.
- Xu, Yi, Effects of tone and focus on the formation and alignment of F0 contours, *Journal of Phonetics* 27, 55–105, 1999.
- Xu, Y., & Sun, X., Maximum speed of pitch change and how it may relate to speech,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1, 1399–1413, 2002.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agmatic functions of *jiushi* and its prosodic realizations.

Four major pragmatic categories of *jiushi* were identified—emphatic

(F1), confirmative (F2), explanatory (F3), and conclusive (F4)—and the prosodic features of pitch (F_0), duration, and slope were analyzed for *jiu* and *shi*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duration revealed that the lengthening of *shi* in the explanatory (F3) and conclusive (F4) types reflects prosodic reinforcement of the discourse functions of explanation and conclusion at sentence boundaries. This finding provides important evidence for the prosodic-pragmatic interface in Mandarin Chinese. From the perspective of duration, *jiu* was found to be prosodically stable, while *shi* was pragmatically variable.

The pitch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pitch contour of *jiushi* represents not merely a phonetic change in F_0 but a prosodic manifestation corresponding to the type of speech act and discourse function. Pragmatic factors such as intentional focus, hearer orientation, and discourse role were directly reflected in the shape of the pitch contour, confirming that the tonal pattern of the adverb *jiushi* plays a crucial role in constructing pragmatic meaning.

Finally, the slope analysis showed that pitch slope serves not simply as an indicator of F_0 inclination but as a prosodic index representing the degree of speaker intention and interactional attitude in discourse.

Key Words : 중국어 부사 ‘就是’(Standard Chinese adverb *jiushi*), 화용 기능(pragmatic function), 운율 실현(prosodic realization), F_0 (fundamental frequency), 음높이·음길이·기울기(pitch·duration·slope)

